

TRAVEL ESSAY

Newsletter 2015-8

장산곶을 통해 백령도를 찾을 날을 기약하며

— 백령도 탐방 기행문 —

김소열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서해 최북단 섬, 옹진군 백령도(白翎島). 탁 트인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에 천안함 위령탑이 서 있다. 주차장에서부터 약간 가파른 오르막을 5분여 걸어 오르자 오른편으로 기다란 세 개의 기둥이 서로 받치고 있는 탑이 눈에 들어온다. 세 기둥은 우리의 영해, 영토, 국민을 뜻한다고 한다. 죽어서도 이 세 가지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천안함 46인의 용사들과 마주하다

7월 9, 10일 이틀간 백령도를 찾은 한반도선진화재단 후원회원, 기획·홍보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 35명은 천안함 용사 46인의 얼굴이 새겨진 위령탑 앞에 도열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더니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들은 먼저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 앞에 머리 숙였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 보기로 했다.

“준위 이창기, 원사 최한권, 김태석, 남기훈, …… 상병 조지훈, 일병 정태준, 장철희” 사회자가 호명하고, 나머지 일행은 위령탑 벽면에 새겨진 호명된 천안함 용사들의 얼굴을 살피며 소리 없이 이름을 따라 외친다. 필자도 용사들을 눈길로 쓰다듬어 본다.

천안함 피격이 있었던 곳은 탑에서부터 불과 직선거리 2.5km 지점이다. 당시 사건 발생 추정 지점을 바라보자니 기억 속에 찰나의 사진처럼 박힌 그날의 순간과 오버랩 됐다. 칠흑 같았던 바다는 평온했지만, 해경 서치라이트에 비춰진 물속에서는 해군 수십 명이 헤엄쳐 나오고 있던 절박한 순간이다. 그날의 사건이 눈앞의 지점에서 일어났다니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갑작스런 폭발음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 순식간에 차오르는 바닷물에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228km 떨어졌다. 서울부터 군산까지의 거리인 셈이다. 백령도 배편은 하루 왕복 2회로 많지 않다. 날씨에 따라 결항되기도 한다. 거리도 거리지만, 서해 최북단이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거리는 더 멀 수밖에 없다. 백령도는 우리가 뉴스에서 익히 들어 익숙한 ‘서해 5도’에 속한다. 우리 일행을 태운 쾌속정은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목적지인 백령도에 12시 20분경에 도착했다. 출발 4시간만 이었다.

백령도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행운이 있다면 바다의 기상과 현지 날씨일 것이다. 출발 이틀 전 까지만 해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예보 때문에 과연 배가 출항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했다. 그래서인지 마치 양동이 안의 물 마냥 잔잔했던 그날 바다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편안했는지 일행들은 배가 한참을 달려 “한 숨 잘 잤다” “괜한 걱정을 했다”고 얘기한다. “출발 전 먹은 멀미약이 아깝다” “우리 일행 중에는 분명 나라를 구한 조상이 있나 보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다음 날 돌아오는 바다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다음날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을 보고 ‘절묘한 타이밍’이 이를 두고 하나 말인 듯싶었다.

장산곶을 바라보며

모두들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백령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백령도에 오늘같이 연무 없이 선명한 날씨는 1년 중 4개월 정도 뿐”이라며 아마 북한 장산곶도 깨끗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일행이 도착한 심청각 앞에 넓게 펼쳐진 황해도 웅진군 장산곶은 17km라는 거리가 무색할 만큼 가까워 보였다. 높지 않은 몇 개의 산이 길게 늘어져 있어 장산(長山)이라고 한다. 장산곶 오른편으로는 2013년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방문했다는 월레도도 보인다. 망월경을 통해 여기저기 꼼꼼히 살펴봤다. 월레도 앞에는 북한 군함으로 추정되는 큰 배가 보였지만, 바다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멀리 중국의 홍조기를 단 어선도 보인다. 이곳 백령도가 북한의 도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거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동 중에 버스 창밖으로 보는 백령도의 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고무보트를 머리

위에 이고 이동 훈련하는 해병대원들의 행렬, 길 몇몇 곳에 위치한 탱크 등만 아니었으면 어느 휴양지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마을 우체국, 편의점,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과 교복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장난치며 지나가는 모습, 물고기를 손질하는 아낙네, 사이다처럼 깨끗한 바닷가의 모습, 수 백 마리의 갈매기 서식지 등을 보고 있자니 여기가 북한의 무인항공기(드론)이 떠다니고, 때때로 장산곶의 포문이 열리고, 북한의 해상사격훈련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긴박한 곳이라는 걸 잠시 잊게 할 정도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섬 가운데, 8번째로 큰 섬이다. 전라남도 완도 보다는 작고, 울릉도 보다는 크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13위였지만, 간석지 매립으로 몸집을 키워 순위를 높였다고 한다. 섬에는 1만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주민은 5천4백여 명이다. 나머지는 군인이다.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7개였고, 거주 주민도 3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고등학교는 1곳뿐이다.

여행 가이드는 백령도 이곳저곳을 오가며 백령도 주민들의 생활상에 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씩 풀었다. “1년 농사를 지어 3년을 먹고 살 만큼 풍족한 곳입니다” “백령도의 강수량은 적지만, 지하수로 농사 물을 쓸 만큼 물이 풍족합니다” “백령도 저수지에서는 망둥어, 쏘가리 등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물고기 축에도 끼지 못 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는 길이가 10여m에 불과하지만, 백령도의 유일한 다리여서 주민들은 백령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풍족하면서도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소개에 백령도를 짝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다.

백령도의 멋과 맛의 매력에 빠지다

높다란 규암절벽이 병풍처럼 길게 펼쳐진 두무진은 백령도의 유명한 관광코스다. 누구는 이곳을 서해안 최고의 비경이라고 하고, 누구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이곳으로 귀양 온 고려 충신 이대기는 ‘늪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극찬했다고 한다. 여객선을 타고 두무진 전반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일행은 주요 몇 곳을 걸어 살피는 것을 택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곳에서 일행들은 한참을 절경에 취해 있었다. 그럼에도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두무진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을 뿐이다.

썰물 때는 폭이 자그마치 300m가 되고, 길이 4km에 이르는 사곶 해수욕장도 장관이었다. 버스가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에 들어서 달릴 때는 도로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모래사장의 흙은 부드러우면서 얼마나 단단한지 버스 바퀴 자국조차 희미하다.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비행장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더불어 세계에서 두 곳뿐이다.

콩돌 해변도 백령도가 자랑하는 명소다. 해안의 파식작용에 의해 마모를 거듭해 형성된 바둑알만 만한 크기의 자갈들로 만들어진 해변이 1km 가량 형성돼 있다. 사곶의 모래사장과는 대조되는 곳에 콩돌 해변에 도착하자, 일행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진 채 부드러운 자갈길을 걷는다. 발을 옮길 때 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듯 자극과 자갈소리가 한적한 여름휴가 느낌을 준다. 자갈밭에 앉아 멀찍이 바다를 감상하기도 하고,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걸어 올려 얇은 바다를 걸기도 한다. 자갈밭에 아예 대자로 드러누운 이도 있다. 바닷물과 자갈이 만든 하모니는 한참을 들어도 좋다. 쇠악~ 쇠악 밀려온 바닷물은 자갈과 만나 사그락~ 사그락 입맞춤 소리를 낸다. 이처럼 아름다운 해조음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휴대폰에 이 소리를 담아가려는 이도 있었지만, 자연풍경과 함께 마음에 담아 두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일행 중 한 무리가 해변이 넓게 보이는 막걸리 파는 식당으로 향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의 거의가 식당을 점령하고 있었다. 식당은 60대의 젊은 할머니 대여섯 분이 약속된 각자의 역할을 통해 운영되는 것 같았다. 앉자마자 자그만 양은주전자에 담긴 냉막걸리가 나온다. 식당 안쪽에서는 밀반찬과 안주를 만드는 손길로 분주했다. 안주로 나온 해물파전과 소라도 정말 맛있었지만, 젓가락은 연신 달콤새콤한 깍두기로 향했다. 조금 걸쭉한 막걸리는 까다로운 입맛의 애주가마저 감탄케 했다. 일행 한 명이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백령도에도 양조장이 있는가를 묻는다. 답변은 '백령도에도 양조장은 있지만, 이것은 육지(인천)에서 공수돼 온 것이다'였다. 막걸리에 대한 찬사는 기분 탓도 컸을 것 같다. 자갈 밭 마사지를 받고, 널찍한 바다의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맛보는 막걸리가 어찌 맛이 없으리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콩돌 해변 역시 사곶과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이다. 그래서 다채로운 색깔의 자갈이 예쁘다고 해서, 기념하고 싶다고 해서 가져갈 수 없다. 돌아가는 버스에서 일행 한 명은 뒷주머니에서 발견한 자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했다. "아이구, 이게 뭐야. 앉아 있지만 했는데 뒷주머니에 자갈이 따라 왔네" 그의 깜찍한 고백에 일행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여행지에서 눈 호강만큼 입 호강도 중요한 일이다. 여행의 오감만족에 있어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백령도는 먹거리로 또 한 번 일행들을 사로잡았다. 백령도에서 맛본 수산물도 '신선' 그 자체였다. 육질이 탱글탱글한 자연산 노래미(놀래미) 회에 삶은 소라에 젓가락질이 바뻏다. 또 백령도의 가리비는 그동안 육지에서 맛본 양식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조개껍질의 단단함과 크기에서 자연산임을 확인했고, 가리비 속에서 발견한 살아있는 소형 게는 가리비의 신선도를 보증해주는 것 같았다. 회 뿐만 아니라 1박 2일 동안 맛본 음식들 모두 '맛깔스럽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미역국, 콩나물국, 냉면은 물론 툇나물 등 각종 밀반찬은 식재료 그 대로의 풍부함과 맛을 모두 담았다. 백령도 음식의 특이한 점은 모든 음식을 까나리 액젓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다. 음식의 간과 맛을 결정짓는 '마법의 양념'처럼 널리 쓰

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최근 입국한 탈북자와 간담회, 사이다 건배로 마무리한 한선재단 상반기 평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운 숙소모임 등도 이번 '백령도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일일 것이다.

딱찬 일정과 뱃길 섬 여행이라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이번 여행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백령도를 품어 온 것 같아 기분이 상쾌했다. 배를 타기 전 백령도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 본다. 지뢰가 깔린 DMZ(비무장지대)가 장차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듯이 백령도가 서해 바다의 평화의 관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백령도에 두고 왔다. 언젠가 될지 기약할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장산곶부터 놓여 질 다리를 건너 백령도를 다시 찾으리라. 그때는 부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말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해전은 도돌이표 될 수 있는 비극, 이제 마침표 찍어야

백령도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 연평해전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함성과 열기에 묻혀, 잊혔던 그들을 조명한 영화다. 가장 가슴 먹먹했던 장면은 역시 교전장면이었다. 실제 30분간 진행됐던 연평해전을 영화에서도 동일한 시간으로 그려낼 만큼 공을 들였다.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기관총과 함포를 잡고 대응사격을 했던 장면은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다. 또 인양되는 참수리 257호정을 향해 해군 동료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도 감동적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경례로 미안함을 대신하고 싶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해전은 북한이 자행한 일이라는 공통점 말고도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 연평해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었던 생존자 박경수 중사가 다시 천안함에서 근무하다 결국 산화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은 8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결국 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통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하다.